한국경호경비학회 – 제37호(2013): 83–108

투고일 2013. 10. 29, 심사일 2013. 11. 11, 게재확정일 2013. 12. 6

테러집단의 범죄 집단과의 결합현상(Crime-Terror Nexus)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탐색적 분석연구

김 은 영

테러집단의 범죄 집단과의 결합현상(Crime-Terror Nexus)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탐색적 분석연구

김 은 영*

〈요 약〉

최근 들어 테러단체들의 범죄활동을 소위 "테러와 범죄와의 결합현상(the Crime-Terror Nexus)"라고 명명하고 있다. 이 현상은 테러집단들이 새로운 변화에 발맞추어 진화되고 있는 테러리즘의 새 패러다임을 일컫는 개념이다. 즉, 서로 다른 배타적인 성격과 영역에 있다고 여겨졌던, 범죄 집단과 테러집단이 연합하거나 또는 두 집단이 하나의 집단의 속성을 띄도록 서로 수렴되고 있는 전이(transformation)현상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이 주목받아야 할 이유는 두 집단의 속성이 서로 합쳐져 하나의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이전의 테러활동의 수준을 벗어난 국제질서와 안보의 큰 위협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중동과 아프리카지역의 테러단체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START center와 Minority at Risk 프로젝트의 MAROB(the Minorities at Risk Organizational Behavior) 데이터를 사용하여 테러의 새로운 진화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탐색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경험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테러와 범죄의 결합현상이 가까운 미래에 가져올 위협과 문제점들이 있으나 이에 대한 연구의 부족과, 테러에 관련된 경험적 연구의 수행의 어려움 등을 고려해 볼 때, 이 연구는 테러리즘에 관련된 학문적 영역 모두에서 매우 큰 공헌점이 있다고 할 것이다.

주제어 : 테러와 범죄의 결합현상, MAROB 데이터, 위험요인에 대한 탐색적 분석, 경험적 연구,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의 테러집단

* 관동대학교 경찰행정학부 범죄수사학과 조교수

목 차

Ⅰ. 서 론
Ⅱ. Crime-Terror nexus를 설명하는 다양한 이론들 및 관련요인들에 관한 선행연구분석
Ⅲ. 연구방법
Ⅳ. 분석결과
Ⅴ. 결론 및 논의

Ⅰ. 서 론

테러단체에 대한 일반적이고 전형적인 이미지는 해당 테러집단의 구성원이나 집단의 존재를 지지하는 인종 및 민족이 폭력적이고 비합법적인 공격행위를 통해 정치적이고 이념적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활동일 것이다. 이러한 테러단체의 활동은 폭력적인 공격적 활동이 주류를 이루어왔으나, 학자들과 정부기관들은 이들의 폭력적, 비합법적 형태의 활동을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행되는 조직범죄나 국제적 범죄와는 구분되는 배타적인 영역으로 구분하여 왔다. 그러나 21세기의 도래 이후 테러활동의 변화에 대한 우려는 바로 테러와 범죄와의 결합현상(Crime-Terror Nexus)이 전 세계적으로 두드러지게 나타나 이전의 범죄와 테러와의 전통적인 구분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고 더 심각한 위협으로 나타나 고 있다고 판단되고 있다(윤민우·김은영, 2013; Makarenko, 2004).

이와 같은 범죄와 테러의 결합현상에 대한 배경은 냉전의 종식, 소비에트 연방 및 공산군의 붕괴, 테러지원 국가들의 경제적 상황악화, 그리고 세계화와 정보통신기술의 변화 등과 같은 테러단체들을 둘러싼 정치적, 경제적, 그리고 기술적 상황의 변화들이다. 먼저, 미국과 구소련연합의 냉전의 종식 및 전통적인 테러지원 국가들의 경제적 약화로 다수의 테러조직이 활동을 위한 자금과 무기의 지원을 보장하던 국가적

지원을 잃게 되었다. 이와 같은 국가들은 구소련연합 뿐만 아니라 이란, 북한, 리비아 등으로 전통적인 의미에서 테러집단들의 가장 주요한 재정적 지원자가 국가였던 것을 감안하면, 이와 같은 정치적 상황의 변화는 테러집단에게 재정적으로 큰 위협이 되었다. 이에 따라 자금과 관련해서는 테러집단들은 자력으로 테러 자금과 무기 등을 충족해야했고 그 방법으로 마약거래, 무기밀거래, 인신매매, 인질납치, 지지기반민족들에 대한 착취 그리고 다양한 종류의 일반범죄활동 등의 범죄활동을 선택하였다. 그리고 세계화와 글로벌 시장의 등장, 그리고 정보통신과 교통부문 기술의 급격한 발전 등의 변화가 테러집단이 여러 형태의 국제적 범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와 막대한 경제적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들어 테러와 범죄의 결합이 성공적으로 번성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김은영, 2013; 윤민우·김은영, 2012).

이러한 테러와 범죄의 결합이 미래의 큰 위협으로 인식되어야 하는 이유는 테러집단과 초국가 범죄 집단 간의 일시적이지 않다는 점이다. 범죄와 테러의 결합현상이 초기에는 테러활동의 유지를 위한 재원충당을 목적으로 테러집단의 범죄활동이 한시적 활동으로 이해되어오던 적이 있었다. 그러나 현재는 이러한 결합이 단순한 일시적 결합의 수준을 벗어나 테러세력이 범죄세력으로 그리고 범죄세력이 테러세력으로 변환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고 보여 진다(김은영, 2013; 윤민우·김은영, 2013; Hesterman, 2013, p.1-5). 예를 들면, 필리핀에서 활동하고 있는 Abu Sayyaf Group(ASG)의 경우 원래의 목표인 정치적 목표달성을 위한 테러활동보다 자금조달을 위한 인질납치범죄에 더욱 매진하고 있으며(O'Brien, 2012), 그리고 콜롬비아의 FARC(Fuerzas Armadas Revolucionarias de Colombia)의 경우는 원래 테러조직으로 시작하였지만 점차 마약 밀거래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 조직으로 진화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이 테러조직의 활동양상이 조직범죄의 활동과 거의 구분하기가 어려울 정도의 현 상황에서는 이러한 비국가 조직의 존재와 목적 그리고 활동양상이 궁극적으로 범죄조직과 구분이 되지 않아 범죄집단과 동일한 성격의 집단이 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윤민우·김은영, 2013; Mathers, 2004, p.112-116).

따라서 학자들은 이 같은 테러집단의 범죄 집단으로의 결합 또는 이행현상에 대해서 범죄활동에 적극 가담하고 있는 테러집단들이 전통적 정의에 따른 테러집단으로 구분 될 수 있는지 여부와 이러한 결합현상에 대한 이론화 등을 위한 논의를 지속해왔다(김은영, 2013; 윤민우·김은영, 2013; Freeman, 2012; Hutchinson & O'malley, 2007: Makarenco, 2004; O'Brien, 2012: Roth & Sever, 2007). 그러나 테러조직들이 범

죄활동의 결합에 대한 서술적 분석에 그쳤으며 단지 가장 최근의 소수의 연구들을 제외하고 테러집단의 속성의 변화 또는 이행 과정에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요인들을 분석하고 파악하기 위한 경험적 연구는 거의 발표되지 못하였다. 더욱이 국내의 테러관련 연구들이 속속 출간되고 있으나 현재까지 발표된 대다수의 연구들은 이러한 주제에 대한 연구를 거의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김두현, 안광호, 2010; 박준석, 2008; 이완희, 윤민우, 김은영, 2013; 정육상, 2010). 따라서 이 연구는 테러와 범죄와의 결합현상 또는 테러집단의 범죄 집단으로의 이행을 설명하는 다양한 관련요인들을 파악하기 위해 실제 테러집단의 범죄활동과 관련된 데이터를 사용하여 탐색적 연구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는 테러와 범죄의 결합현상에 대한 이론의 정립과 더불어 최근 들어 국제질서를 위협하는 가장 큰 위협으로 떠오른 테러-범죄의 융합현상 또는 테러집단의 범죄 집단으로의 이행현상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필요한 연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의 또 다른 중요성은 분석에 사용된 데이터인 the Minorities at Risk Organizational Behavior(이하 MAROB)가 16개의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 국가들에서 활동하고 있는 118개의 테러단체들에 대한 범죄활동 및 다양한 테러집단의 성격에 대한 변수들을 포함한 데이터라는 것이다. 이 MAROB의 데이터는 이들 단체들의 형성과 테러나 폭력 등을 사용한 형태의 극단적인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무엇인지를 분석하기 위한 목적으로 1980년부터 2004년까지 수집되었으며 그 결과 총1,739건의 범죄활동을 포함한 테러 및 불법 또는 합법적인 폭력적 활동에 대한 정보들을 보유하고 있다. 특별히 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MAROB 데이터 중에서도 각 단체가 활동을 펼치고 있는 지역 국가 또는 합법적 정부에서 불법단체로 분류한 단체들만을 선정하여 118개의 단체들 중 59개의 집단의 범죄사건에 대한 정보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Ⅱ. Crime-Terror nexus를 설명하는 다양한 이론들 및 관련요인들에 관한 선행연구분석

최근까지 테러와 범죄의 결합현상에 대한 연구들은 서술적 분석연구나, 특정 테러집단의 범죄활동의 관여를 사례분석 하여왔다(Freeman, 2012; Hutchinson &

O'malley, 2007: Makarenco, 2004; O'Brien, 2012: Roth & Sever, 2007). 그러나 테러집단의 범죄 집단과의 결합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해서 경험적 연구를 시도한 연구는 매우 드물다. 특히, 국내에서는 이와 같은 주제를 다룬 연구를 거의 찾아보기가 어렵다(김은영, 2013; 윤민우,김은영, 2013). 우선, 국외에서 발표된 소수의 연구들은 크게 세 가지의 방향으로 테러와 범죄의 결합현상에 대해 연구하여왔다. 첫째, 테러집단과 조직범죄집단의 상호 동맹이 가능한지 여부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Hoffman,). 둘째, 테러집단과 범죄 집단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서로의 연관성이 더 커지며 두 집단들의 성격이 더욱 유사한 형태로 수렴되고 있다는 테러집단의 범죄집단으로의 전이 또는 이행(transformation)을 설명하고자 하는 이론적 논의가 또한 있었다(김은영, 2013; 윤민우, 김은영, 2013; Makarenco, 2004).

이 연구에서는 두 가지 이론적 논의의 가능성에 대해 살펴보고 보다 최근에 더 큰 이론적 지지를 받고 있는 테러집단의 범죄 집단으로의 전이현상을 설명하는 이론에 근거하여 테러집단들이 범죄에 관여하게 되는 요인들이 무엇인지를 탐색적으로 파악해 보고자 한다. 테러집단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원인과 관련요인들을 설명하는 이론적 배경으로는 Freeman의 테러집단의 재정충당이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분석적 논의와 선행연구의 결과들이 적용되었다.

1. 테러집단과 범죄조직의 차이 및 협력적 파트너관계의 가능성에 대한 논의

테러집단과 초국가적 조직범죄집단의 목적과 동기는 원칙적으로 성격이 다른 이 두 집단들이 지속적으로 협력하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주요 특성이다. 따라서 이 두 가지 특성들을 사용하여 테러집단과 범죄조직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학자들 사이에서 일반적으로 테러집단과 조직범죄단체의 두 집단의 속성의 차이를 정의하기 위한 주요 기준이 논의되어왔다. 우선 특정 행위를 테러활동으로 규정하는 것은 여타 다른 끔찍한 범죄활동과 구분 짓는다. 테러리즘에 관해서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전문가 중 하나인 Bruce Hoffman(2007)은 테러리즘을 정의하는 데 있어서 가장 널리 인정되고 있는 주요 구성요인들로 다음과 같은 특성을 제시하였다. 먼저, 테러의 목적이 정치적 목적과 동기를 가지고 있고; 폭력적이거나 최소한 폭력에 대한 위협을 사용하며; 둘째, 이들의 활동이 직접적인 피해자나 테러의 목표를 넘어서는

대상들에게까지 널리 전달될 수 있는 심리적 억압이 행사될 수 있도록 고안된 행위들이어야 하며; 셋째, 조직 또는 공모를 함께 하는 점조직, 그리고 비국가적 단체 등의 성격을 지닌 조직에 의해 저질러진다는 것이다. Hoaffman은 테러리스트들은 본질적으로 박애주의자들인데 그것은 이들이 자신들이 보다 크고 광범위한 사람들을 위한 "선한"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애쓰는 존재들이라고 스스로 믿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이에 비해서 범죄자들은 이와 같은 이유와 목적이 없으며 자신들만의 개인적 부의 축재와 물질적 이득과 만족을 추구하기 위해 행위 하는 존재들이라는 것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는 초국가적 조직범죄집단들에 의한 폭력적 행위들은 전형적 개념의 테러의 정의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는 무엇보다도 조직범죄단체들이 전통적 개념의 정치적인 목적을 결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초국가적 조직범죄집단들은 일반적으로 자신들의 불법적이고, 이득을 획득하는 활동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현상을 유지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반면에 테러단체들은 정치적 목적으로 정부를 전복시킨다던지 또는 최소한 정치적 자리에서 자리를 보장받거나 독립적인 영토의 확보를 얻어내기 위해 게릴라적 활동을 수행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Hoffman에 의해서 제시된 테러단체와 조직범죄집단에 대한 전통적인 정의적 분석은 현재까지도 이 두 단체들의 속성에 대한 근본적인 차이를 설명하는데 적용이 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처럼 구분되는 테러집단과 조직범죄집단은 필요에 의해서 서로 협력하는 존재들인가? Hoffman의 견해에 의하면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두 집단들은 선호하는 형태의 폭력행위, 폭력의 대상, 그리고 그 목적의 차이로 인해서 상호 협력할 수 있는 집단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초국가적 범죄집단은 일반적으로 국가의 전복이나 정치적 파워를 가지는 것을 추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일반적인 테러집단이 선호하는 독립된 국가의 형성, 독립적인 정부의 설립 등과 같은 목적을 표방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조직범죄집단의 리더들의 경우 급진적 형태의 폭력을 사용하거나 이를 통해 얻은 자금을 또 다른 폭력행위를 위해 사용하는 일은 없다. 조직범죄집단이 폭력을 사용하는 것은 단지 집단의 이득을 취하기 위한 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며 따라서 폭력을 행사하는 대상의 선택 역시 조직과 경쟁관계에 있는 대상에 대한 폭력이 주를 이룬다. 그리고 지나치게 폭력적이고 큰 규모의 살상을 일으켜 불필요한 관심과 정부로부터의 형사사법적 목표대상이 되길 원하지 않는다.

이에 반해서 테러단체들은 상징적인 테러대상들, 기차역, 공항, 비행기, 정부나 상

업시설 들 중 상징적인 대상들을 선별하여 무차별적 공격을 감행함으로써 전 국가적, 그리고 전 세계적 관심을 이끌어내길 원한다. 이러한 테러집단의 특성은 집단의 활동목표가 전형적인 이데올로기적 정치적 목적이나 민족적 독립이 아니고 종교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에라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 특히 근본주의적인 종교적 목적을 지닌 테러집단들은 오히려 더욱 급진적인 폭력적 방법을 선호한다.

따라서 단지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폭력을 사용하고 폭력의 대상을 선정하여 비밀스럽게 활동을 하고자 하는 범죄 집단은 테러집단들이 선호하고 목표로 하는 폭력의 수단과 방법 및 대상이 보다 강력한 정부의 응징과 대응을 불러올 수 있어 오히려 부담스러울 뿐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테러집단들 역시 마약거래나 기타 범죄활동을 통해 부를 축적하는 범죄 집단과 협력하여 활동하는 것이 테러활동을 하는 지지기반에 알려져 테러집단들이 내세우는 이념과 이들이 가지는 정당성에 흠을 가져다주는 것을 원치 않는다. 이와 같은 두 극단에 놓여있는 조직범죄집단과 테러집단의 협력은 결코 장기적인 행보가 될 수 없을 것이다.

2. 테러집단의 범죄 집단으로의 이행에 관한 이론

한편 Makarenko(2004)와 윤민우·김은영(2013)은 범죄와 테러의 결합에 대해서 전통적으로 배타적이고 차별적으로 존재했던 테러집단과 국제조직범죄집단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두 개체의 유사성이 증가하여 서로 비슷한 실체로 수렴되는 현상을 관찰하였다. 그리고 두 집단 간의 유사성과 수렴성의 정도를 하나의 긴 스펙트럼의 연장선상에서의 위치상의 실체로서 이해하는 이론적 논의를 제기하였다. 즉 Makarenko에 의하면 테러조직과 범죄 집단의 목표와 폭력사용의 동기는 서로 다른 양상을 띠고 있으나 이는 절대적인 차이라기보다는 상대적인 차이라고 주장한다. 전술적 측면의 필요성에 의해 테러전략을 채택하는 범죄조직과 범죄 사업을 통해 경제적 이득을 얻고자 하는 테러조직들이 출연하면서 각각의 전략적 필요에 의해 두 가지의 상반된 집단적 목표와 동기가 결과적으로 서로 수렴현상이 심화되면서 일정수준에 도달하게 되면 정치적 권력의 추구가 경제적 부의 추구라는 전략적 목표자체가 수렴하여 융합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다. 결국 이들 테러집단들이 궁극적으로 범죄조직과 구분이 되지 않는 하나의 스펙트럼 상에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Mathers, 2004, p.112-116).

이와 같은 테러집단과 범죄 집단의 수렴현상은 두 가지의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다. 우선, 두 개의 이질적인 집단의 테러집단과 범죄 집단이 동시적으로 두 가지 전략적 목표를 추구하면서 전술적으로 융합되며 장기적으로는 목표에 따라 융합 될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의 독립된 단체가 (테러집단 또는 조직범죄집단) 테러 집단적 또는 범죄적 성격의 전술적 필요와 전략적 변화가 필요할 때 취하게 되는 상대적 특성이 이들 집단이 다른 테러집단 또는 범죄적 성격의 집단으로 결국 변환되도록 만들어간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현상들은 테러조직과 범죄조직이라는 두 가지의 서로 이질적인 속성의 폭력집단들이 결과적으로는 하나의 연속선상으로 펼쳐진 스펙트럼 위의 양 극단에 위치해 있으며, 상황과 조건 그리고 필요에 따라 끊임없이 거리를 좁혀가며 상호 수렴해 가는 경향과 속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윤민우·김은영, 2013; Makarenko, 2004).

즉, 범죄 조직의 경우 그들의 부를 막대한 규모로 축적하여 일정한 수준을 넘어서게 되면 궁극적으로 자신들의 부를 지키기 위해 정치적인 권력을 추구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반대로 테러 조직의 경우도 자신들의 정치적, 종교적, 권력적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를 위해 물질적 부가 필요하게 되며 궁극적으로 자신들이 추구하는 정치적 권력의 공고화를 위해서도 경제적 부가 반드시 필요하게 된다.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동일한 스펙트럼의 연장선상에 위치한 양 극단에서 테러조직과 범죄조직은 성장함에 따라 궁극적으로 같은 지향점으로 수렴되는 현상을 보여주게 된다. 더욱이 전술적으로도 이들 조직들은 경제적 부의 추구와 정치적, 신념적 목적의 추구라는 연장선상 위에서 한쪽 극단에서 다른 쪽 극단으로 끊임없이 움직이는 동태적인 양상을 보여준다. 이러한 실존적 고려 때문에 테러조직과 범죄조직은 정태적으로 머물러 있지 않으며 상황과 조건에 따라 한 형태에서 다른 형태로 변화하는 동태적 속성을 띤다(Mathers, 2004, p.112-116).

3. 테러집단의 범죄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분석

그렇다면 이들 테러집단이 범죄화 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과연 무엇일까?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의 선행연구가 수행되었다 그 중 특히 Freeman(2007)은 테러집단의 자신들의 활동을 유지하기 위한 자금조달의 필요가 이

들 집단의 범죄 집단화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이라고 주장하였다. Freeman에 의하면 테러집단들은 테러자금 조달에 대한 필요성 때문에 다양한 범죄 행위에 참여하게 된다. 그리고 재정적인 필요가 전제가 된 이후에 특정 테러집단을 둘러싼 정치적, 환경적, 지리적 그리고 상황적 상황 등 다양한 요인들이 함께 작동하면선 특정 테러집단의 범죄활동의 참여에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하였다. 이와 같이 자금이 필요한 테러집단의 범죄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Freeman(2007)은 다음과 같이 여섯 가지로 세분화하였다: '벌어들일 수 있는 돈의 양(quantity)', '정당성(legitimacy)', '보안성(security)', '안정성(reliability)', '통제성(control)', 그리고 '단순성(simplicity)'이 그것이다.

벌어들일 수 있는 돈의 양(quantity)이란 테러집단이 획득할 수 있는 가능한 많은 양의 돈이 담보될 때, 범죄행위에 가담한다는 의미이다. 두 번째로, 정당성(legitimacy)의 확보가 주요 요인들이다. 테러조직의 유지와 운영을 지속적으로 유지시키는 중요한 요인의 하나인 집단의 정당성이 어느 정도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담보된 가운데 테러집단이 범죄활동에 가담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이는 테러집단이 정당성을 잃게 되면 테러조직의 기반이 되는 디아스포라로부터의 지원과 지지를 잃을 수 있고 지속적인 테러조직원들의 모집을 어렵게 하여 테러집단의 궁극적 목표달성을 어렵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세 번째는 보안성(security)이다. 즉, 테러집단은 될 수 있는 대로 공격대상국가의 공권력으로부터 들키지 않을 수 있는 은밀한 방법을 통해 돈을 벌어들이고자 하는 것이다. 네 번째는 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재원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한다는 안정성(reliability)이다.

그리고 다섯 번째의 통제성(control)은 이는 제 삼의 국가나 외부 단체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는 테러집단의 경우에 대한 설명이다. 즉, 테러집단이 자신들의 활동에 대해 외부의 통제나 영향력이 미치는 것을 원치 않으므로 범죄나 기타 방법여하를 따라 집단 자체적으로 자금을 조달하기를 원한다는 것이다. 한편, 이와 같은 통제성과 관련 있는 부분은 집단의 리더쉽의 형태이다. 테러집단의 재정을 집단의 중앙지휘부에서 책임을 지는지 또는 지역의 지휘부가 책임을 지는지 여부에 따라 집단의 재정충당의 분산효과가 나타나게 된다. 그리고 이것은 중앙지휘부의 지역지휘부에 대한 통제력의 감소를 의미하게 된다. 그리고 통제성과 관련해서 나타나는 또 다른 문제의 하나는 만약 집단 내부의 리더쉽에 경쟁구도가 형성되는 경우 분산된 리더쉽으로 인해서 집단의 활동이 순수테러활동에서 점차 범죄활동화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O'Brien(2012)의 ASG의 분석결과 분열적이고 경쟁적 리더쉽이 집단의 결속을 약화시키고 더 나아가 범죄화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마지막으로 단순성(simplicity)은 테러집단이 재정을 획득하기 위해 선택하는 방법이 단순할수록 선호된다는 것이다. 직접적인 예로, 자신들의 지지기반에 대한 착취나 절도 등의 범죄가 선호된다는 것이다(김은영, 2013: p.115-117).

이와 같은 이론적 논의 외에 테러집단의 범죄와의 결합을 연구한 다양한 선행연구들이 테러집단의 범죄 집단으로의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탐색적 이해를 도울 수 있는 결과들을 보고하고 있다. 우선, Hutchinson과 O'malley(2007)의 연구는 2001년 911사태 이후 자금마련이 더욱 어려워진 테러집단들이 범죄활동에 참여하는 현상들을 이해하기 위해 테러와 범죄의 결합을 보이는 몇몇 집단들과 그렇지 않은 집단들에 대한 사례를 분석하여 범죄와 테러의 결합현상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FARC, LTTE, 그리고 Al Qaeda의 테러집단들은 테러집단의 조직적 특성과 지향하는 목표에 따라 테러집단들이 범죄조직과 연계하여 범죄활동에 참여하는데 있어 차이가 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즉, 테러집단의 규모, 조직의 지속 연수, 조직원들의 수, 테러집단의 조직화의 정도(집단의 구성형식, 조직의 내부적 문제 여부, 리더쉽 스타일 등), 그리고 테러집단의 이념적 목표의 특성 등의 요인들이 테러집단의 범죄조직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또한 범죄와의 결합이 극심한 형태를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진 PKK에 대한 Roth와 Sever(2007)의 사례분석연구와 ASG에 대한 O'Brien의 (2012) 분석연구들은 특정 테러집단의 사례에 초점을 맞추어 테러집단의 범죄성에 대한 문헌연구 분석 및 경험적 연구의 분석을 수행하였다. ASG의 납치활동에 대한 경험적 연구분석을 수행한 O'Brien(2012)은 미국의 START센터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지난 20년간 ASG의 범죄적 목적, 즉 납치금을 목적으로 한 납치범죄사건과 ASG 집단의 이념적 목적달성을 위한 테러사건의 발생에 대비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ASG는 조직의 리더쉽, 조직의 구조, 그리고 테러리스트들의 불만 등의 내적요인들이 이념적 목표를 지향하는 테러행위가 아닌 자금조달을 위한 인질납치범죄행위의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Roth와 Sever(2007) 역시 인신매매, 불법마약, 무기거래 및 불법이민자 밀입국, 그리고 돈세탁 및 약취 등의 다양한 범죄와 관련이 되어있는 PKK가 국제적인 범죄조직과 협력을 하는 관계를 나타내고 있으며 동시에 집단 자체적으로 범죄 집단화로의

이행과정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Roth와 Sever는 PKK가 범죄조직화 되어가는 데 영향을 미쳤던 요인들로 강력한 리더쉽의 존재, 유럽과 터키 내의 쿠르드족 디아스포라의 존재, 그리고 이 집단의 본부가 자리 잡은 국가인 터키의 지리적 위치 등을 거론하였다. 그 외에도 전반적인 세계화 경향, PKK의 활동을 지원하는 스폰서 국가의 존재, 그리고 국경지역을 둘러싼 분쟁 등을 국제적인 요인으로 거론하였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들은 테러와 범죄와의 결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유익한 정보를 제공한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이 이론적 개념이 적용이 되지 않았거나 경험적 데이터가 사용되지 않은 문헌적 사례분석 또는 서술적 보고에 그쳤다는 한계점들이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수행하고자 하는 경험적 연구데이터를 사용하여 연구의 한계점들을 극복하고자 하였다.

4. 연구가설

앞선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들의 발견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 가설들을 검증하고자 한다.

가설 1. 테러집단의 정당성을 담보하는 이념적 목표(극좌파적 정치적 이데올로기, 종교적 목표, 민족적 목표 등)는 범죄와의 결합과 부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테러집단의 조직적 특성 중 강력한 리더쉽, 장기간의 테러집단의 설립기간 은 테러집단의 범죄와의 결합과 정적인 영향이 있고, 분열된 집단 내의 경쟁적 리더쉽은 부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테러집단이 위치한 국가가 다수의 국경지역과 접한 지리적 특성과 외국국가의 지원이 범죄와의 결합과 정적인 관계에 있을 것이다.

가설 4. 테러집단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디아스포라와 국경 외부의 공개적 활동 거점의 운영은 범죄활동과의 결합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5. 테러집단에 대한 테러대상국가의 강압적 진압이나 대응은 테러집단의 범죄활동의 관여와 부정적 관계에 있을 것이다.

Ⅲ. 연구방법

1. 데이터

이 연구의 분석을 위해서 Minorities at Risk 프로젝트의 연구사업의 일환으로서 수집된 the Minorities at Risk Organizational Behavior(이하 MAROB) 데이터가 사용되었다. 우선 MAROB의 모연구사업인 Minorities at Risk 프로젝트는 현재 미국에서 일부 인종적 소수집단들이 국가나 정치적 권위에 대해 테러나 폭력 등을 사용한 과격단체 및 극단적 활동조직들의 현상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해나가기 위한 연구의 목적을 가진 대학과 연구기관들의 융합학문프로젝트이다. 이 연구는 특히, 중동지역과 북아프리카에 위치한 지역의 인종·정치적 기관들의 특성에 대한 정보들을 수집하여 포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 프로젝트는 중동과 북아프리카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16개국의 118개 조직들에 대한 정보들을 1980년부터 2004년에 이르기까지의 수집하여 보유하고 있다. 그 결과 이 데이터는 총1,739건의 범죄활동을 포함한 테러 및 불법 또는 합법적인 폭력적 활동에 대한 정보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현재 미국 메릴랜드대학의 START 센터의 대테러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과 연계하여 미국 국토안보부의 재정지원아래 수행되고 있다.

연구수행을 위해서 전체 MAROB 데이터에 수집된 위험소수인종의 단체들 중 특히 자국의 정부에서 불법으로 형성된 단체로 지명한 단체들만을 선별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그 이유는 연구가설이 테러집단의 범죄 집단과의 결합을 연구하는 것이므로 MAROB의 데이터에 속한 모든 위험소수인종의 인종·정치적 단체들을 대상으로 분류하는 것은 연구가설을 보다 명확히 검증하지 못하다는 연구자의 판단에 의한 것이었다. 따라서 연구분석을 위해 총 118개의 집단 중 불법단체로 분류된 단 59개의 테러집단들이 최종 선별되어 사용되었으며, 이들 집단이 관련된 총 714개의 테러사건 및 범죄사건에 대한 정보가 사용되었다.

2. 변수

1) 종속변수

테러집단의 범죄활동 가담. 분석에 사용된 59개 테러집단들이 집단의 활동자금을

모금하기 위한 목적으로 적극적으로 범죄행위를 주도하였는지 여부를 이항으로 변수화하여 사용하였다(1=범죄를 주도한 적이 있다, 0=범죄를 주도한 적이 없다). MAROB의 원데이터는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폭력행위 등의 테러행위를 제외하고) 각 집단들이 활동자금을 모금하기 위한 목적으로 범죄행위를 주도하였는가?"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테러집단들의 주도한 범죄행위에 포함된 범죄의 카테고리들은 모두 여덟 가지로 그 종류는 다음과 같다: 돈세탁, 무기밀거래, 마약밀거래, 노동 착취 등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인신매매, 성매매를 위한 인신매매, 사설상업시설 및 물품 등에 대한 절도, 희귀물품 착취 및 거래(희귀보석 및 희귀열대동물 등), 그리고 몸값을 위한 인질납치를 포함하고 있다. 만약, 각 집단이 위의 여덟 가지 범주에 속하는 범죄활동 중 단 한 가지 이상이라도 주도적으로 관련되었거나 관련되어 왔다는 기록이 있다면 그 집단은 범죄를 주도한 적이 있는 것으로 (1) 분류되었다.

2) 독립변수

테러집단들의 범죄에의 가담을 설명하는 선행연구들과 이론적 모델들에서 제시하고 있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관련요인들이 독립변수로 사용하였다.

테러집단의 국경 외 지역거점조직의 공개적 운영. 테러집단의 거점국가의 국외에 공개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지역거점조직들을 보유하고 운영하는 지 여부를 변수로 만들었다(1=테러집단이 거점을 두는 국가 내부의 활동은 은밀하게 수행하고 있으나 국외에 공개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지역거점조직들을 보유하고 운영하는 경우, 0=그 외의 경우). 테러집단이 국외에 공개적으로 활동하는 지역조직들을 운영하고 있다면 이들 테러집단들이 국경을 넘나드는 범죄활동 등에 더욱 용이하게 가담하고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강력한 단일 리더쉽. 테러조직이 강력한 단일 인물의 리더쉽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를 변수로 만들었다(1=예, 0=아니오). 선행연구들에서도 거론되었듯이 테러조직의 리더쉽이 강력하고 교조주의적인 카리스마있는 단일 인물에 의해 조직되고 운영이 된다면 이러한 테러집단이 다수의 경쟁적 리더나 약한 리더쉽을 가진 리더에 의해 운영되거나, 테러단체의 의회집단 등에 의해서 조직이 이끌어지는 경우보다 범죄에 관여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되었다.

분열된 집단 내의 경쟁적 리더쉽. 테러조직의 활동과 구조와 관련하여 조직의 리더가 사망하거나 투옥되는 등의 사건을 경험하게 되어 상징적이고 강력한 리더쉽이

부재하거나 하부지역조직의 조직단체들의 세력이 강력해 지게 되면서 테러단체의 거점조직의 리더쉽과 경쟁관계에 있게 되거나 새로운 리더쉽을 세우기 위한 경쟁이 조직 내부에서 발생하게 된다. 이런 경우, 테러단체의 내부 분열 또는 리더쉽의 경쟁구도가 테러단체들의 범죄관여현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 가를 분석하기 위해 사용된 변수이다. 이 변수는 테러단체 내부에 분열된 두 개 이상의 리더쉽이 경쟁구도에 있는 것으로 관측이 될 경우(1)와 그렇지 않은 경우(0)로 측정되어 변수화하였다. 테러단체의 분열된 집단 내의 리더쉽의 경쟁은 범죄활동과의 연계를 더욱 쉽게 할 수 있는 것으로 예측된다.

테러단체 거점지역의 지리적 위치. 테러집단의 조직이 주로 거점으로 삼고 있는 지역의 특성을 테러단체의 자생지역국가의 국경 내부 또는 외부, 또는 국경 내부와 외부에 동시에 존재하고 있는지 여부를 변수화하였다. 이 변수는 테러집단의 본부조직이 테러단체가 자생하고 테러를 감행하고자 하는 테러대상지역 내에만 위치하고 있는 경우와 반대로 대상테러국가의 대테러활동 등으로 인해서 국가 내부지역에 위치하지 못하여 단지 국경 밖에서만 거점조직을 운영하는 경우는 테러집단이 테러대상국가 내부뿐만 아니라 국경 외부에도 거점 조직을 운영하고 활동하고 있는 경우에 비해 이들 테러집단들이 범죄활동에 관여하는 것에 보다 불리하게 작용하는 요인일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 변수는 테러집단의 위치가 대상테러국가의 국경 내부에만 국한되어 위치하고 있을 경우와 테러의 목표가 되는 국가 내에 위치하지 못하고 근접국가 등 대상테러국가의 국경밖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0)와 테러조직의 거점조직이 대상 테러국가의 국경 내부뿐만 아니라 국경 외부에도 있을 경우(=1)의 두 가지의 이항변수로 측정되었다.

테러집단설립연도. 테러집단의 운영기간이 이들의 테러활동 뿐만 아니라 범죄와의 결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가를 이해하기 위해서 테러집단의 설립연도를 변수로 사용하였다. 테러집단의 설립기간이 길수록 이들 테러집단이 범죄와 결합되는 위험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의 강압적 대테러정책사용. 각 테러집단들이 공격의 대상, 또는 영향력을 미치고자 하는 국가들의 정부에서 각 테러집단들에 대한 대테러전략이 폭력적인 대응책을 사용하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을 사용하여 변수하였다. 이 변수의 국가의 강압적 대테러 대응책의 적용은 다음의 3가지 단계로 측정되었다(1=테러대상국가의 테러집단에 대한 테러대응전략이 치명적으로 강압적인 대응전략을 사용하지 않는다;

2=테러대상국가가 테러집단에 대한 대테러대응전략으로 간헐적이지만 치명적인 강압적 대응을 사용한다; 3= 테러대상국가가 테러집단에 대한 대테러전략은 지속적이고 치명적인 수준의 강압적 대응이다).

디아스포라의 지원. 각 테러집단들이 활동시기에 디아스포라로부터 테러활동에 대한 지원과 지지(예, 재정적 지원 등)을 받았는지 여부를 측정하였다. 만약 테러집단들이 디아스포라가 있고 그들의 활동에 대한 지원 및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될 경우(=1)와 그렇지 못한 경우(=0)로 측정된 이항변수로 만들어져 사용되었다. 디아스포라의 지원과 지지는 테러집단들의 재정충당, 테러활동가 모집 및 정보수집 등의 다양한 방안을 통해서 테러활동을 용이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이들 집단의 범죄와의 관련을 쉽게 하고 성공적으로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주요한 요인의 하나로 예측된다.

외국국가의 지원. 테러단체들이 테러대상국가나 테러단체의 자생국가를 제외한 제 3의 국가로부터 재정적, 물류적, 정치적, 그리고 군사적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받았는지 여부가 변수화 되어 사용되었다. 변수는 테러단체가 제 3의 외국국가로부터 그들의 활동에 대한 지원을 받았을 경우(=1)와 그러한 외국의 지원을 받지 못한 경우(=0)로 측정되어 변수화되었다. 이와 같은 외국국가의 지원은 테러단체들이 테러활동 외에 범죄활동에 주도적으로 관련되고 지속해 나가는 것을 낮추어주는 요인으로 예측된다. 이는 제 3의 외국으로부터의 지원을 통해서 테러집단의 활동과 유지에 드는 다양한 비용들에 대한 지원이 일부 가능하기 때문에 테러집단이 그들의 활동의 정당성을 어렵게 하고 위험을 증가시키는 범죄와 주도적 결합의 필요성을 낮출 것이라고 예상되기 때문이다.

극좌파주의적 이념. 테러집단의 목적과 동기가 좌파주의적인 이념일 경우(=1)와 그렇지 않은 경우(=0)의 이항변수로 측정되었다.

민족주의적 이념. 테러집단의 목적과 동기가 민족의 독립적 국가나 홈랜드(homeland)의 회복 그리고 민족의 독립적 정부설립인 경우(=1)와 그렇지 않은 경우(=0)의 이항변수로 측정되었다.

종교적 이념. 테러집단의 목적이 특정 종교적 이념을 전파하고 대중들에게 종교적 신념을 확산시키는 등의 종교적 이념을 표방하는 경우(=1)와 그렇지 않은 경우(=0)의 이항변수로 측정되었다.

Ⅳ. 분석결과

1. 기술적 분석결과

연구에 사용된 변수들 간의 기술적 분석결과가 제시된 <표2> 전에 <표1>에 이 연구에서 사용된 데이터가 수집된 테러집단들의 이름이 제시되었다.

<표1>의 목록에 제시된 테러집단들은 주로 근거활동지역이 중동과 북아프리카지역이며 전체 MAROB 데이터에 수집된 위험소수인종의 단체들 중 특히 자국의 정부에서 불법으로 형성된 단체로 지명한 단체들만을 선별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표 1〉 연구분석에 사용된 MAROB 데이터 중 국가들에 의해서 불법적 집단으로 분류된 테러집단의 명단 (n=59)

테러집단이름	테러집단이름	테러집단이름
Al-Mourabitoun	Iraqi Homeland Party	United Azerbaijan Movement
Ansar al-Islam	Iraqi Islamic Party	Partiya Karkari Kurdistan
Asbat al-Ansar	Iraqi National Accord	Kurdistan Socialist Democratic Party
Bahrain Freedom Movement	Iraqi National Alliance	Workers' Communist Party of Iraq
Black September Organization	Iraqi National Salvation Movement	The Reform Movement
Conservative Party	Iraqi Officers Movement	Kurdistan Toilers' Party
Democratic Centrist Tendency	Islamic Accord Movement	Saudi Hizbollah
Democratic Front for the Liberation of	Islamic Action Organization	South Lebanon Army
Fatah/Palestinian Liberation Organizati	Islamic Front for the Liberation of Bah	Supreme Council for the Islamic Revolut
Front des Forces Socialistes	Islamic Labor Organization	The Kurdistan (Kurdish) Democratic Part
Free Officers' Movement	Islamic Movement in Iraqi Kurdistan	Kurdistan Ulusal Kurtulus Partisi
Hamas	Jordanian People's Democratic Party	Movement for the Autonomy of Kabylie
Hizb al-Da'wa al-Islamiyya	Kurdish Democratic Progressive Party	National Liberation Movement of Souther
Iraqi Baath Party	Kurdish Democratic Unity Party	National Revival Movement of Southern A
Iraqi Communist Party	Kurdish Islamic Group	Organization of Revolutionary Toilers o
Iraqi Hizbullah	Kurdish Revolutionary Hezbollah of Iraq	Palestinian Hezbollah
Polisario	Kurdistan Democratic Party	Palestinian Islamic Jihad
Popular Front for the Liberation of Pal	Kurdistan Islamic Union	Palestinian People's Party
United Azerbaijan Movement	Kurdistan People's Democratic Party	Patriotic Union of Kurdistan

<표 2>의 기술적 분석결과는 연구의 분석에 사용된 총 59개의 테러집단들에서 도출된 변수들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이들 테러집단들 중 범죄활동에 가담한 적이 있는 것으로 기록된 집단들은 총 6%로 714건의 테러와 범죄의 사건들 중 약 42건의 범죄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전체 테러집단들 중 테러집단의 본부가 위치한 국가의 국경 내부뿐만 아니라 국경 외부에도 국경 밖의 지역에서 지역단위의 조직을 운영하고 있는 단체는 64%에 달하였으며, 이들 집단 중 국경 밖의 국가에서 테러의 지역단위 조직의 운영을 비밀리에 운영하지 않고 공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단체는 38%였다. 그리고 테러집단들의 리더쉽의 특성은 강력한 단일 리더쉽 아래에서 운영되고 있는 단체들은 약 26%에 달하였으며, 테러집단이 분열되어 경쟁적 리더쉽의 특성을 나타내는 단체들은 약 4%였다. 또한 테러집단들의 평균적 설립기간은 약 20년이었으며 가장 먼저 설립된 단체는 1954년 그리고 가장 최근에 설립된 단체는 2002년 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테러집단들에 대한 대상 국가의 대테러 정책이 강압적인 정도는 대부분이 강압적인 대응책을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하는 경우는 치명적이지만 간헐적으로 강압적 대응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디아스포라의 지원을 받고 있는 테러집단은 약 9% 정도였다. 마지막으로 테러집단이 추구하는 목적과 이념을 분석한 결과 극좌파주의적 이념을 표방한 단체는 34%, 민족주의적 이념을 표방하고 있는 단체는 51%그리고 종교적 이념을 나타내는 단체는 36%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이념적 분포는 두 가지 이상의 이념적 목표가 공존하는 경우에는 복수로 조사되었다.

〈표 2〉 종속변수와 독립변수의 기술적 통계분석결과 (총 714 사례수)

변 수	평균 (혹은 비율%)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종속변수				
테러집단의 범죄활동 가담(가담한 적이 있음=1)	6%	.23	0	1
독립변수				
국경 밖 공개적 지역거점조직운영	38%	.48	0	1
강력한 단일 리더쉽 (그렇다 =1)	26%	.42	0	1
분열된 집단 내의 경쟁적 리더쉽 (그렇다 =1)	4%	.21	0	1
테러단체 거점지역의 지리적 위치	64%	.47	0	1
테러집단 설립연도 (연도)	1974	15.40	1954	2002
국가의 강압적 대테러정책 사용정도	1.57	.65	1	3

변 수	평균 (혹은 비율%)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다이아스포라의 지원 (그렇다 =1)	9%	.25	0	1
외국국가의 지원(그렇다 =1)	45%	.50	0	1
극좌파주의적 이념 (그렇다 =1)	34%	.47	0	1
민족주의적 이념 (그렇다 =1)	51%	.50	0	1
종교적 이념 (그렇다 =1)	36%	.45	0	1

2. 이변량 상관관계분석결과

종속변수와 독립변수간의 이변량 상관관계분석결과는 단 세 가지의 독립변수 (분열된 집단 내의 경쟁적 리더쉽, 테러집단의 설립연도, 그리고 종교적 이념)를 제외하고 테러집단의 범죄활동에의 관여여부와 모두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방향성은 대부분 연구의 가설에서 예측한 방향과 일치하고 있으나, 국가의 강압적 대테러정책 사용정도, 극좌파적 이념, 민족주의적 이념의 세 가지 독립변수는 가설에서 예측한 방향과 반대의 방향을 나타내고 있었다.

이 후 회귀분석을 수행하기 전 독립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분석결과 다중공선성문제를 일으킬 수 있을 정도로 높은 상관관계를 가진 독립변수들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종속변수와 독립변수간의 이변량 상관분석결과

변수	(1)	(2)	(3)	(4)	(5)	(6)	(7)	(8)	(9)	(10)	(11)
범죄가담여부	.12*	.11*	-.02	.16*	-.07	.24*	.26*	.21*	.12*	.19*	-.01

* P 〈 0.05

3. 로지스틱 다중회귀분석결과

〈표 4〉 테러단체들의 범죄관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회귀분석결과

변수	b	S.E	Odds Ratio
국경 밖 공개적 지역거점조직운영	1.98	.55	7.29***
강력한 단일 리더쉽 (그렇다 =1)	1.18	1.77	3.26*
분열된 집단 내의 경쟁적 리더쉽 (그렇다 =1)	-1.40	.28	.24

변수	b	S.E	Odds Ratio
테러단체 거점조직의 지리적 위치	2.01	6.87	7.40*
테러집단 설립연도 (연도)	-.05	.01	.94***
국가의 강압적 대테러정책의 사용정도	.61	.65	1.84
다이아스포라의 지원 (그렇다 =1)	2.55	9.50	12.89***
외국국가의 지원(그렇다 =1)	1.38	2.38	4.01*
극좌파주의적 이념 (그렇다 =1)	-.01	1.04	.90
민족주의적 이념 (그렇다 =1)	2.44	8.62	11.53***
종교적 이념 (그렇다 =1)	1.67	6.12	5.34
Nagelkerke R-제곱		.46	
LR chi2(12)		104.67***	

* P < 0.05, ** P < 0.01, *** P < 0.001

<표 4>는 이 연구의 연구가설들을 검증하기 위한 로지스틱 다중회귀분석의 결과가 제시하고 있다. 먼저 분석결과 분열된 집단 내의 경쟁적 리더쉽과 국가의 강압적 대테러 정책의 사용정도, 그리고 테러집단들의 극좌파주의적 이념을 제외한 모든 변수들이 이들 테러집단들의 범죄관여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었다. 그 외의 모든 변수들 즉, 테러집단이 국경 밖 공개적 지역거점조직을 운영하는지 여부, 강력한 단일 리더쉽을 가지고 있는 경우, 테러단체의 거점조직의 지리적 위치, 디아스포라의 지원, 외국국가로부터의 지원, 그리고 테러집단의 이념적 성향이 민족주의적 이념을 표방할 경우 이들 테러집단이 범죄활동에 가담할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테러집단의 설립연도의 경우, Odds ratio가 종속변수와 부적 관계인 것으로 나타나 보이나 실제로 설립연도를 변수로 사용하였으므로 설립연도가 최근일수록 범죄와의 결합을 낮추는 요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설립연도가 오래된 테러집단일 수록 범죄활동에 관여할 위험이 높아진다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따라서 분석결과 설립연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이며 테러집단이 설립되고 유지된 기간이 장기화 될수록 테러집단들이 범죄활동에의 가담하는 것을 높이는 위험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테러집단의 범죄와의 결합을 유의미하게 설명하고 있는 요인들 중, 테러집단을 지지하는 디아스포라의 존재가 가장 큰 위험요인이고, 그 뒤를 민족주의적 테러집단의 이념이 뒤 따르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테러집단들이 국경을 넘는 초국가적 범죄활동을 수행할 때, 민족주의적 이념을 표방하고 있는 그 대상 디아스포라의 존

재가 범죄활동을 매우 용이하게 하는 재정적, 인적, 물류적 지원을 하고 있으며 동시에 민족주의적 이념에 근거하여 디아스포라에 대한 테러집단의 직접적 착취 및 다양한 범죄활동이 수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Ⅴ. 결론 및 논의

연구의 분석결과 5가지의 연구가설 중 일부는 지지되었으나 일부 가설은 지지되지 않는 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우선, 분석한 회귀분석의 결과는 가설 1을 지지하지 않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테러집단의 정당성을 담보하는 이념적 목표인 극좌파적 정치적 이데올로기, 종교적 목표가 테러집단의 범죄활동의 참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요인들이었으며, 민족주의적 이념의 표방은 오히려 테러집단이 범죄활동을 할 가능성을 높이는 위험요인이었다. 이는 선행연구와 이론적 논의들이 주장하고 있는 테러단체의 정당성을 담보하는 데 있어서 테러집단들의 이데올로기적 이념이 더 이상 큰 의미를 가지지 않는 것이라고 해석될 수 도 있다. 따라서 Freeman의 이론에서 논의하고 있는 테러집단의 정당성의 확보 및 그 외의 선행연구들의 논의와 관련해서 테러집단의 활동과 관련하여 극좌파적 이념이나 종교적 이념을 표방하는 테러집단들과 달리 민족주의적 이념을 가진 집단에 대한 정당성은 이들 집단이 범죄활동과 관련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목적과 동기의 정당성의 확보에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서, 이 결과는 민족주의적 이념을 표방하는 테러단체들은 그들의 지지기반인 디아스포라 등의 범죄활동을 용이하게 하는 다른 요인들에 의해서 범죄와의 결합이 더욱 쉬워졌을 수도 있다는 또 다른 해석이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테러집단의 조직적 특성 중 강력한 리더쉽, 장기간의 테러집단의 설립기간은 테러집단의 범죄와의 결합과 부정적 영향이 있고, 분열된 집단 내의 경쟁적 리더쉽은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2의 가정을 지지하지 못하였다. 강력한 단일 리더에 의한 테러집단의 운영과 장기간 동안의 집단의 유지는 테러집단이 범죄와의 결합을 더욱 쉽게 만드는 위험요인들이었다. 그에 반해서 분열된 집단 내의 경쟁적 리더쉽들은 테러집단의 범죄와의 결합을 설명하는 요인이 되지 못하였다. 이는 선행연구들에서 나타난 ASG의 사례와 같이 테러집단 내 지위체계의 갈등과 경쟁으로

인해 테러활동의 목적이 정치적인 목적에서 금전적 이익추구의 목적으로의 변화와 같은 사례보다 PKK의 활동에서 보인 바와 같이 단일의 카리스마를 가진 막강한 리더쉽에 의해 운영되는 테러집단이 범죄활동으로의 결합하고 변화되는 것이 보다 일반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관계일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듯이 보인다. 그 외에 테러집단의 설립기간이 길수록 단일 리더쉽 또는 그 단일 리더쉽을 둘러싼 지휘체계가 집단의 의사결정과 수행에 큰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기반요인이 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추정을 가능하게 한다.

그리고 가설 3과 4에서 예상한 대로, 테러집단이 위치하는 국가가 다수의 국경지역과 접한 지리적 특성과 외국국가의 지원, 테러집단의 지지기반인 디아스포라의 존재와 국경 외부의 지역에서 테러집단이 공개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지역거점을 운영하는 것은 테러집단들의 범죄활동과의 결합을 증가시킬 수 있는 위협요인임을 확인하였다. 이는 선행연구와 이론적 논의들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테러집단의 지리적 위치, 대상테러국가와의 국제정치적 갈등상황 등을 통한 외국국가의 지원, 범죄활동을 용이하게 하는 디아스포라의 존재, 그리고 테러집단의 국경 밖 국가에서의 공개적 활동 등의 여건들이 범죄활동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인적 네트워크 및 로지스틱스, 그리고 활동을 수행할 테러활동가들의 지속적인 모집 등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이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디아스포라의 존재는 다양한 인적, 재정적, 물류적 지원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그 집단 자체가 다양한 범죄를 수행할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테러집단들의 범죄와의 결합 및 이행현상을 증가시키는 결정적인 요인이 될 것이다. 따라서 테러집단의 범죄와의 결합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테러집단의 디아스포라에 대한 국제기관과 국가들의 다양한 대테러 정책적 간섭과 중재가 매우 중요하며 또한 테러집단이 공개적으로 거점 활동을 하는 것을 미연에 차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가설 5에서 예견한 테러집단에 대한 테러대상국가의 진압이나 대응은 테러집단의 범죄활동의 관여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연구에 사용된 데이터의 테러단체에 대한 국가와 정부의 정책이 매우 강압적이고 치명적이라는 보고의 수준이 낮다는 데 문제가 있다. 대테러 정책이 일정한 수준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일정한 수준 이상의 강압성 또는 치명성을 담보해야하지만 이 연구에서 사용된 데이터에서 나타난 강압적 진압의 수준이 어떠한 영향이나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정도의 강도로 수행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상황에

서 이 연구의 결과만을 바탕으로 국가의 강압적 대응전략이 관련이 없는 요인이라고 성급히 결론을 내리는 것은 오류를 가져올 수 있는 해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연구는 결과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의 제한점이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분석에 사용된 데이터의 테러집단의 범죄활동에 대한 정보가 단지 6%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과 모든 독립변수들이 종속변수들보다 시간적으로 앞서는 것을 담보하지 못하였다는 점, 그리고 모든 범죄활동이 기록이 되지 못하였을 것이라는 데이터의 단점 등과 같은 문제점들이 그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테러집단과 범죄의 결합현상에 대한 이해가 서술적 논의에 그쳐왔다는 점과, 20여 년간의 실존하는 테러집단의 범죄활동에 대한 데이터를 사용하여 테러집단의 범죄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요인들에 대해 탐구적인 경험적 분석을 수행하였다는 점이 학문적 공헌점이다. 그리고 테러집단이 범죄 집단과 결합현상의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정책적 함의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이 또 다른 공헌점이라고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국내문헌

김두현·안광호(2010). 다중이용시설의 대테러 안전대책, 한국경호경비학회지 제22호: 37-64.

김은영(2013). 테러집단의 범죄 집단으로의 이행현상에 대한 연구: Freeman의 테러자금조달 이론의 적용을 통한 PKK사례분석. 한국테러학회보, 제 6권 3호. 112-130.

박준석(2008). 테러대응을 위한 국가기관의 과제와 전망. 한국경호경비연구, 제 17호:157-172.

이완희·윤민우·김은영 (2013). 인터넷 시대의 정보활동: OSNIT의 이해와 적용사례분석, 한국경호경비학회, 제 34호: 259-278.

윤민우·김은영(2012). 다차원 안보위협과 융합안보. 한국경호경비학회, 제31호: 157-183.

윤민우·김은영(2013). 유라시아지역에서의 범죄 및 Crime-Terror Nexus의 국가장악현상과 지역안보질서에 대한 위협, 한국치안행정논집, 제 9권 3호: 89-112.

정육상(2010).생물테러 대응체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 한국경호경비학회 제22호: 113~144.

2. 국외문헌

Freeman, M. (2012). The sources of terrorist financing: Theory and typology. Studies in Conflict & Terrorism. 34: 461-475.

Hesterman, J. L. (2013) *The Terrorist-Criminal Nexus*. Boca Raton, FL: CRC Press.

Hoffman, B. (2007). *The radicalization of diasporas and terrorism*, RAND.

Hutchinson, S., & O'malley, P. (2007). A crime-terror nexus? Thinking on some of the links between terrorism and criminality, Studies in Conflict & Terrorism. 30: 1095-1107.

Makarenko, T. (2004). The crime-terror continuum: Tracing the interplay between transnational organised crime and terrorism. Global Crime. 6:129-145.

Mathers, C. (2004) *Crime school: Money laundering: True crime meets the world of business and finance*. Buffalo, NY: Firefly Books Inc.

O'Brien, M. (2012). Fluctuations between crime and terror: The case of Abu Sayyaf's kidnapping activities. Terrorism and Political Violence, 24: 320-336.

Roth. M. P, & Sever, M. (2007). The Kurdish workers party(PKK) as criminal syndicate: Funding terrorism through organized crime, a case study. Studies in Conflict and Terrorism. 30:901-920.

【Abstract】

An exploration of factors affecting the Crime-Terror Nexus

Kim, Eun-Young

Since the end of the Cold War and rapid globalization and technical developments, terrorist groups actively involved in criminal activities. Also criminal entrepreneurs became a major financial revenue for these terrorists groups. This newly patternized activities among terrorist groups is now called as Crime-Terror Nexus" indicating the changing nature of terrorism, which means two traditionally separate phenomena, crime and terrorism, became more similar. This new pattern of terrorism is considered to create synergy for the criminal organizations and terrorist groups, scholars believe that it would become a significant threat to the security of world community in the near future. Although the phenomenon of this crime-terror nexus is significant and imminent threats, there is lack of studies investigation this new evolution of terrorism with empirical data. Moreover there is literally no studies exploring factors relevant to the Crime-Terror Nexus. Therefore, this current study aims to conduct explorative investigation of factors affecting the "Crime-Terror Nexus" with a world terrorism data, MAROB(the Minorities at Risk Organizational Behavior), which is developed by START and Minority at Risk project and contains information terrorist groups in Middle-East and Africa region. Considering the significance of this new terrorism patterns and the challenging nature of conducting empirical studies on this topic, this study has great contribution on the development in the field of criminal justice as well as terrorism.

Key words : the Crime-terror nexus, MAROB, Exploration of risk factors, Empirical studies, Middle east and africa region terrorist groups